⑵ 영 등

영등할머니가 2월 1일 지상에 내려왔다가 20일 승천한다는 것이다.
이날 영등할머니는 며느리나 딸을 데리고 오는데, 딸을 데리고 올 때는 거센 바람을 일으키지 않고 며느리와 같이 올 때는 며느리의 옷이 해지도록 큰 바람과 비를 내린다고 한다. 부엌이나 뒤뜰에 새 바가지에 물을 떠놓고 치성을 드리기도 하고 신죽대 가지에 흰 헝겊이나 흰 종이를 묶어 세우고 나물, 과일, 잡곡밥, 시루떡 등을 해놓고 '금년 농사철에 바람 없이 해달라'고 빈다.
또 영등신이 지상에 있는 20일간은 모든 행선을 삼가야 한다고 믿는다. 영등제사를 지내면서 집 식구수대로 소지(燒紙)를 하며 그해 신수를 빌기도 한다. 영등날 비가 내리면 물영등이라 해서 그해 비가 많이 내려 풍년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햇볕이 쨍쨍 쬐면 불영등이라 해서 가뭄이 들 것으로 생각한다. 영등날에는 조그만 단지에 보리를 담아 대나무를 꽂고 대나무 끝에는 삼색띠(빨강, 파랑, 노랑)를 묶어서 장독대에 놓고 정성으로 빈다. 또한 설강 밑에 보리를 심고 그 옆에 대나무로 선반을 만들어 물 종발을 얹는다. 상천 때 보리를 보리밭에 치운다. 영등할매(제석할매)에 돌릴 제물을 장만할 때 맛을 보면 입이 비틀어진다. 또한 농문을 열어놓고 미리 고운 옷을 입어야 한다. 영등날 고운 옷을 입으면 눈이 아프다.